

워크아웃 6년만에 금호그룹 재건 청신호

박삼구 회장 매각가 수용...금호산업 인수 절차와 전망

연말까지 인수자금 마련해 채권단에 납부해야
박회장, 계열사 재매각해 자금조달 나설 듯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금호산업의 우선 매수권 행사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실질적인 그룹 지배권을 되찾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호아시아나그룹과 산업은행은 24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채권단으로부터 금호산업 경영권 지분(지분을 50%+1주)을 7228억원에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박 회장은 지난 2009년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가 워크아웃을 신청한 지 6년 만에 그룹 재건을 눈앞에 두게 됐다.
◇워크아웃 6년만에 다시 금호아시아나 품에=앞서 금호산업 채권단은 지난 23일 금호산업 최종 매각가 7228억원(주당 4만2133원)을 우선협상자인 박 회장에 최종 통보했다. 이에 공식 통보만 기다려온 박 회장은 같은 날 곧바로 “(채권단 가격) 수용할 것”이라며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의지를 전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계약일로부터 인수자금 마련까지 3개월 남짓한 시간이 남은 만큼 자금마련에 대한 자신감도 내비

쳤다. 박 회장이 인수자금을 마련해 12월 24일(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까지 채권단에 납부하면 금호산업을 되찾게 된다.
금호산업은 사실상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지주사로 아시아나항공 지분 30.08%를 보유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금호터미널과 아시아나에어포트, 아시아나 IDT, 아시아나개발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다. 또 에어부산 지분 46%를 가지고 있다. 금호고속의 지분 100%는 금호터미널에 있다.
◇박 회장 계열사들 재매각해 자금 조달할 듯=박 회장이 금호산업 채권단에 제안한 매각가격을 수용함에 따라 박 회장이 어떻게 인수 자금을 조달할 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회장은 매매계약 체결 한 달 내(10월 23일) 채권단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채권단 한 관계자는 “박 회장 측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보내오면 실현가능성 등을 위주로 먼저 따져볼 것”이라며 “위약벌 5% 조항이 있으니 박 회장 측도 자금조달계획서를 성실하게 작성할 것”이라

금호산업 지분 매매 과정 및 향후 일정		금호산업 주요 주주 단위: %	
9월 11일	채권단 전체회의, 최종 매각가격 7228억원으로 결정	박삼구회장 일가	10.07
14일	산업은행, 채권단 회의의 안건 부의	미래에셋	8.55
18일	7228억원으로 최종 결의	티와이스타	4.77
21일	산업은행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그룹 회장에게 가격 통지	디케이에이치	4.61
24일	박삼구 회장, 우선매수권 행사 및 주식매매계약 체결	산업은행	4.42
		산은캐피탈	4.34
		칸서스	4.05
		농협은행	4.05
		대우증권	3.83
한달내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기타채권단	18.98
12월 30일	거래 종결		

※ 2015년 3월 감사보고서 기준

고 말했다. 채권단은 박 회장의 자금상황을 고려해 계약금을 따로 받지 않는다. 다만 연내 계약 무산 시 매각금액의 5%를 위약금(361억원)으로 물리는 내용을 계약서에 담았다.
재계에서는 박삼구 회장이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금호산업 인수를 통해 되찾게 되는 계열사들을 재매각해 자금을 조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계열사들이 자금을 각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박삼구 회장이 금호산업 증손회사인 금호고속을 우호세력인 칸서스자산운용

에 3000억~4000억원에 팔아 금호산업을 사들일 현금을 마련한 후 그룹 경영이 정상화되면 다시 금호고속을 되살릴 것이라는 것이다. 칸서스자산운용은 최근 금호고속 인수를 목적으로 하는 약정액 1805억원 규모의 칸서스KHB펀드를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아직 어느 하나 구체적인 자금조달 방법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면서 “현재는 폭넓게 자금조달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라고 답했다 /김대성기자 bigkim@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1947.10 (+2.46)
- ▲ 금리 (국고채 3년) 1.63% (+0.01)
- ▲ 코스닥 683.88 (+3.60)
- ▲ 환율 (USD) 1192.50원 (+1.30)

보증금 못받은 세입자 이사 쉬워진다

주택금융공사, 임차권등기 특별보증 신청 시기 한 달 단축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에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에 대한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신청 시기가 단축된다.
주택금융공사는 다음 달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서가 있으면 임차권등기 세입자에 대한 특별보증 신청 시기를 현행 임차권등기명령 완료 후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접수 후로 요건을 완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세입자가 이사할 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는 제도다.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이사를 하더라도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주택금융공사는 2012년부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세입자에 대해 특별보증을 통해 전세대출을 해왔다. 이제까지 특별보증은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명령서가 임대인에게 송달되는 과정 등을 거쳐 등기명령이 완료되어야만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서를 받은 세입자의 경우 등기명령을 신청만 하면 바로 특별보증을 받을 수 있다. 이로써 특별보증 신청 가능 시기가 한 달 정도 앞당겨질 전망이다.
현재 지자체장 추천서는 서울시에에서만 받을 수 있다.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02-2133-1200~08)가 추천 관련 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연합뉴스

디젤차, 국내서 인기 유럽선 내리막

국내 상반기 점유율 50% 넘어...유럽은 3년 연속 감소

폴크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사태로 디젤 차량의 대기오염 문제가 주목받는 가운데 세계 최대의 디젤차 시장인 유럽에서는 디젤차 판매가 2011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에서는 디젤차 판매가 갈수록 증가해 올해 상반기에는 처음으로 점유율 50%를 넘었다.
24일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의 자동차 신규등록 통계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승용차 시장에서 디젤차의 비중은 2000년 32.8%에서 2011년 56.1%까지 올라갔다가 2012년 55.6%, 2013년 53.8%, 2014년 53.6% 등으로 3년 연속 감소했다.
국가별로 보면 프랑스는 2008년 디젤차 비중이 77.3%까지 높아졌지만 이후 하락세를 보여 지난해 63.9%까지 떨어졌다. 프랑스 파리는 시장이 대기오염을 억제하기 위해 구형 디젤차의 유통을 2020년에 전면 금지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스페인 디젤차 비중이 2011년 70.3%에서 3년만에 64.9%로 내려갔다. 벨기에, 덴마크 등도 같은 기간 하락폭

이 컸다. 독일과 영국 이탈리아의 디젤차 비중은 각각 47.8%와 50.1%, 54.9%로 큰 변동이 없었다.
극심한 경제난에 빠진 그리스는 전체 차량 등록 대수가 감소한 가운데 디젤차 비중이 2011년 10.0%에서 2014년 6.5%로 급증했으며 EU 회원국이 아닌 나라 가운데 ‘전기차의 천국’으로 떠오른 노르웨이는 같은 기간 디젤차 비중이 75.7%에서 48.7%로 격감했다. 미국과 일본은 디젤 승용차 비중이 2012년 기준 각각 3.0%와 0.3%로 미미한 수준이다. 한국에서는 승용차와 승합차, 화물차 등 전체 차량에서 경유차가 올해 상반기 51.9%를 차지해 휘발유차(37.6%)를 14.3% 포인트 차이로 제쳤다. 나머지는 LPG(7.5%)와 하이브리드(2.3%), 전기차(0.1%), 기타(0.6%) 등이었다. 경유차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연료비와 높은 연비 등에 힘입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0% 증가했지만 휘발유와 LPG 차량은 각각 1.6%와 13.8% 감소했다. 2014년 전제로는 경유차 48.5%, 휘발유차 39.8%였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차이가 더 벌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임시 공휴일 소비진작 ‘효과’

정부가 올해 광복절 전날(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것이 상당한 소비진작 효과를 냈음이 카드사의 데이터로 확인됐다. KB국민카드의 자사 개인 회원의 이용실적을 분석해 보니 이번 광복절 임시공휴일이 신용·체크카드 이용 건수와 금액을 크게 늘리는 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밝혔다.
국민카드는 광복절이 수요일인 2012년과 금요일이라 자연스럽게 연휴가 이어진 2014년, 토요일이었으나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역시 사흘 연휴가 이어진 올해 데이터를 비교했다. 그 결과 광복절이 낀 주의 주말(금~일요일)에 카드 이용을 통한 소비개선 효과가 올해 뚜렷했다.
올해 광복절 연휴인 14~16일의 카드 이용건수는 똑같이 사흘 연휴이던 지난해 15~17일보다 17.2% 늘어났다. 같은 기간 카드 이용금액도 10.1% 증가했다.
광복절이 수요일인 2012년의 같은 주말(17~19일)과 비교해 보면 올해 광복절 연휴의 카드 이용건수는 40.6%, 금액은 15.1% 증가했다. 범위를 8월 전체로 넓혀서 봐도 소비 개선 효과가 확인됐다. /연합뉴스



한전 “소외이웃 사랑합니다” 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은 24일 추석 명절을 맞아 경영진과 노조간부 60여명이 광주 남구 사회복지시설인 소화자매원을 방문, 음식만들기, 산책보조 및 전기차 시승, 환경정화 활동 등의 봉사활동을 펼치고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전달했다. <한국전력 제공>

담보대출

APT, 주택, 상가, 대지 감평가 대비 70% 가능

보증서 담보 대출(햇살론) 최대 2,000만원 가능

임대보증금 대출 보증금 대비 최대 80% 가능

신용대출 최대 5,000만원 까지 (담보대출 보유시 우대금리 적용)

※ 당사가 정하고 있는 조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체크기 설치 및 유지 보수 관리(결제계좌 변경시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 건수에 따라 유지보수 수수료 지원 가능

빛고을새마을금고

<p>본점 062)525-2770~2 (용봉동 현대자동차서비스 옆)</p>	<p>용주점 062)525-2774 (용봉동 주민센터 앞)</p>	<p>삼각점 062)525-2776 (삼각동 고려고등학교 옆)</p>
--	---	---